

내적 재구 방법론을 통한 신약성경 그리스어의 자음 음가 재구

이상일*

모든 언어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그 언어의 알파벳의 음가이다. 한 언어의 알파벳의 음가를 알아야 발음할 수 있고, 그 언어를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 언어의 문법을 체계화할 수 있고, 그 문법으로 기록을 남길 수가 있다. 또한 언어의 알파벳의 음가는 그 언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모든 언어학적 층위에서 필요하다. 고전어의 음가를 알기 위해서 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역사비교언어학의 방법론인 내적 재구 방법과 비교 재구 방법을 사용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내적 재구 방법론을 통하여 음성학적, 음운론적, 형태론적, 통사론적 층위의 자료들에 근거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신약성경 그리스어 자음의 음가들을 재구하고자 한다.

1. 서론

신약성경 그리스어 자음의 음가를 보다 정확하게 재구해야 할 주요한 이유는 언어학의 층위별로 나타난다.¹⁾ 음성학적으로는 알파벳의 음가를 알

* Durham University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충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leesangil@hotmail.com.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5S1A5A8017254). 또한 2017년 8월 독일 Berlin에서 열린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Meeting의 Hellenistic Greek Language and Linguistics 분과에서 Internal reconstruction of sound values of plosives and affricates in Hellenistic Greek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2014년 10월에 한국신약학회에서 “코이네 헬라어의 음가 재구-역사비교언어학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논문을 대폭 개정하였다.

아야 그 알파벳을 발음할 수 있기 때문에 음가 재구가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음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음운론 층위에서는 음운 과정(phonological process)에 따른 음운 규칙(phonological rule)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형태론 층위에서는, 파생접사(derivational affix)와 굴절접사(inflectional affix)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통사론 층위에서는 통사 규칙(syntactic rule)에 대한 보다 쉬운 설명을 통하여 보다 정확한 문법을 이해할 수 있고, 문법 설명에서 불규칙적인 변화로 설명하던 것을 규칙적인 변화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신약성경 그리스어의 음가를 보다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리스어 연구에서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작업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어의 음가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로, 학교들마다 학자들마다 그리스어 음가가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기준이 없다.²⁾ 대부분의 경우 그리스어를 처음 배울 때 자신의 선생에게서 배웠던 그 발음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 발음은 주로 에라스무스식 발음이다.³⁾ 고전 그리스어와 성경 그리스어의 대부분의 문법책들은 에라스무스가 재구한 발음을 따르고 있다. 보다 최근에는 방대한 자료와 탁월한 분석력으로 그리스어 자음을 분석한, 돋보이는 연구서들도 있다.⁴⁾ 그러나 이 학자들의 주장들도

-
- 1) 일반언어학으로 주로 불리는, 언어학(Linguistics)이라는 학문의 세부 전공은 음성학(Phonetics), 음운론(Phonology), 형태론(Morphology), 통사론(Syntax), 의미론(Semantics), 그리고 역사비교언어학(Historical-Comparative Linguistics)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언어학에 대한 기초도서로는 김방한 외, 『일반언어학』(서울: 형설, 1992)이 있다. 합리론 우위의 일반언어학 외에 20세기 후반기를 지나면서 경험론 우위의 관점에서 언어에 접근하는 것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한 분야로는 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인지언어학(Cognitive Linguistics), 인류언어학(Anthropological Linguistics) 등이 있다. 언어학의 전 분야를 신약성경 그리스어를 분석하는 데 적용한 대표적인 책으로는,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이상일 역(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Grand Rapids: Baker, 1998)가 있다.
 - 2) 딜런(M. Dillon)은 그리스어 발음을 따라가야 할, 일관성 있는 모델이 없다고 당황스러워한다. M. Dillon, "The Erasmian Pronunciation of Ancient Greek: A New Perspective", *The Classical World* 94:4 (2001), 323.
 - 3) 에라스무스식 발음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출판물들을 참조하라. I. Bywater, *The Erasmian Pronunciation of Greek and its Precursors Jerome Alexander Aldus Manutius Antonio of Lebrixa* (London: Henry Frowde, 1908); N. F. Moore, *Remarks on the Pronunciation of the Greek Language* (New York: James Eastburn and Co., 1819); M. Dillon, "The Erasmian Pronunciation of Ancient Greek: A New Perspective", 323-334. 주요한 비판서로는 C. C. Caragounis,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WUNT I 167 (Tübingen: Mohr Siebeck, 2004)가 있다.
 - 4) W. B. Stanford, *The Sound of Greek: Studies in the Greek Theory and Practice of Euphony*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S. Allen, *Accent and Rhythm: Prosodic Features of Latin and Greek: A Study in Theory and Reconstruction* (Cambridge: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언어학의 학문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어 보인다.

전통적으로 음성 재구는 역사비교언어학에서 해 왔다.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음성을 재구하는 방법으로는 비교 재구(comparative reconstruction)와 내적 재구(internal reconstruction)가 있다. 비교 재구는 두 개나 그 이상의 언어들과 방언들의 음운 대응(sound correspondences)을 통하여 음성을 재구하는 것을 말한다.⁵⁾ 내적 재구는 한 언어 내의 공시적인 기술을 통하여 음성을 재구하는 것을 말한다.⁶⁾ 논문의 양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내적 재구를 통하여 코이네 그리스어자음 음가를 재구해 보고자 한다.

2. 자음의 분류 방법

먼저, 자음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음은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분류할 수 있다. 그 세 가지는 조음 방법(method of articulation), 조음 위치(place of articulation), 그리고 유무성(un/voiced)이다.⁷⁾ 조음 방법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가리킨다.⁸⁾ 흡입, 압축, 파열의 세 단계를 거치는 파열음(plosive), 기류가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S. Allen, *Vox Graeca: A Guide to the Pronunciation of Classical Greek*,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 Probert, "Phonology", E. J. Bakker, ed., *A Companion to the Ancient Greek Language* (West Sussex: Wiley Blackwell, 2010), 85-103; S. Colvin, *A Historical Greek Reader: Mycenaean to the Koiné*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C. C. Caragounis,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 5) 비교 재구는 친근성 가설(relatedness hypothesis)과 규칙성 가설(regularity hypothesis)에 근거한다. 친근성 가설은 두 언어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 규칙성 가설은 언어가 일정한 정도의 규칙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말한다. 그에 대해 참고할 도서로는, R. J. Jeffers and I. Lehisté,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London: The MIT Press, 1979), 2장 Comparative Reconstruction을 보라.
- 6) 내적 재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라. R. J. Jeffers and I. Lehisté,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3장.
- 7) 자음의 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론은 다음 책들을 참조하라. 김방한 외, 『일반언어학』 2장; P. Carr, *Phonology* (London: Macmillan, 1993) 21-30; L. M. Hyman,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5);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2장.
- 8) 존 웰스, 그레타 코울슨, 『음성학』, 이현복 편역 (서울: 탐구당, 1982); J. C. Wells and G. Colson, *Practical Phonetics* (London: Pitman, 1971), 7장을 보라. 클레어 슬로우트, 샤론 헨더슨 테일러, 제임스 호어드, 『음운학 개설』, 이현복, 김기섭 공역 (서울: 탐구당, 1983); C. Sloat, S. H. Taylor and J. E. Hoard, *Introduction to Phonology* (New Jersey: Prentice Hall, 1978), 48-64.

통과하는 통로를 좁혀서 소리 내는 마찰음(fricative), 파열을 시킨 후에 마찰을 시키는 파찰음(affricate), 혀끝을 입천장에 붙이고 그 양쪽 옆으로 기류를 흘려보내는 설측음(lateral), 기류의 일부분을 비강을 통해서 내는 비음(nasal), 굴려서 내는 소리인 굴림소리(rolled) 등이 있다.

조음 위치는 조음이 이루어지는 위치를 말한다.⁹⁾ 두 입술 사이에서 나는 양순음(bilabial), 이 사이에서 나는 치간음(interdental), 입술과 이 사이에서 나는 순치음(labiodental), 윗니 바로 뒤에 조금 튀어나온 부분인 치조에서 나는 치조음(alveolar), 입천장 중에 딱딱한 부분인 경구개에서 나는 경구개음(palatal), 경구개 뒤쪽에 있는 부드러운 부분인 연구개에서 나는 연구개음(velar), 후두에서 나는 후음(guttural) 등이 있다.

마지막 분류 기준으로는 성문의 상태가 있는데, 소리를 낼 때 성대가 울리면 유성음(voiced)이고 성대가 울리지 않으면 무성음(voiceless)이라고 한다.¹⁰⁾ 본 논문에서는 조음 방법을 중심으로 신약성경 그리스어 자음들을 분류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서 다루는 그리스어 문법책들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로 된 신약성경 그리스어 문법책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이순한¹¹⁾과 박창환¹²⁾은 그레섬 메이천(G. Machen)¹³⁾을 번역하거나 편역한 것이고 발음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두 권은 제외하고 메이천을 인용할 예정이다.¹⁴⁾ 한글로 번역된 책 중에 데이빗 앨런 블랙(D. A. Black)¹⁵⁾의 책은 음성학적으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책은 자세히 다룰 것이다. 최근에 출간된 외국어로 된 문법책의 경우, 다니엘 윌리스(D. B. Wallace)¹⁶⁾,

9) 존 웰스, 그레타 코울슨, 『음성학』, 4장을 보라. 클레어 슬로우트, 샤론 헨더슨 테일러, 제임스 호어드, 『음운학 개설』, 45-47.

10) 존 웰스, 그레타 코울슨, 『음성학』, 41. 그리고 11장, 12장을 보라.

11) 이순한, 『신약성서 헬라어』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12) 박창환, 『신약성서 회랍어 교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2).

13) G. Machen,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 (New York: Macmillan, 1923).

14) 한국에서 발간된 그리스어 문법책들은 발음과 관련하여 메이천을 번역하거나 편역한 책이 대부분이고, 그 발음을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적인 설명이 있는 책으로는 조운일, 『신약 헬라어』 (서울: 솔로몬, 2009)가 있다. 장석조, 『신약성경 헬라어』 (서울: 그리스심, 2010)는 파열음과 관련된 음성학적인 설명이 있다. 독특한 점을 간단히 인용하면, π, τ, κ는 무성음으로, β, δ, γ는 유성음으로, φ, θ, χ는 기식음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음성학적인 설명이 없다.

15)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각주 1을 보라.

16) D. B. Wallace, *The Basics of New Testament Syntax: An Intermediate Greek Grammar* (Grand Rapids: Zondervan, 2000). 중급 문법책인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에도 발음에 대한 부분은 없다.

윌리엄 마운스(W. D. Mounce)¹⁷⁾, 제레미 더프(J. Duff)¹⁸⁾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윌리스는 발음에 대한 설명 자체가 없고, 마운스와 더프는 에라스무스식을 따라가면서 발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여기서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이 논문에서 주로 비교할 문법책으로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데이빗 앨런 블랙,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레섬 메이천, 음성학/음운론적인 설명을 제시하는 다나(H. E. Dana)와 만티(J. R. Mantey)¹⁹⁾, 가장 중요한 문법서들 중에 하나이며 음성학/음운론적인 설명을 자세히 제시하는 제임스 호프 몰튼(J. H. Moulton)²⁰⁾과 허버트 위어 스미스(H. W. Smyth)²¹⁾를 비교하면서 진행하고자 한다.

3. 신약성경 그리스어 마찰음과 파열음 재구

먼저, 그리스어 문법학자들이 재구한 마찰음과 파열음을 살펴보겠다. 이 둘을 같이 다루는 이유는 파열음을 마찰음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같이 다루는 것이 논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3.1. 신약성경 그리스어 마찰음 재구

마찰음은 기류가 구강을 통과할 때 특정 부분을 좁혀서 마찰을 일으키는 방법에 의해 조음되는 소리이다.²²⁾ 가장 대표적인 마찰음은 σ 이다. σ 가 마찰음이라는 것은 주요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없다.²³⁾ 그리고 스미스는 신약성경 그리스어에서 마찰음은 σ 하나밖에 없다고 말한다.²⁴⁾ 신약성경 그리스어 마찰음 σ 의 조음 위치는 치조다. [s]²⁵⁾는 나중에 살펴볼 문법들을 보

17) W. D. Mounce, *Basics of Biblical Greek Grammar* (Grand Rapids: Zondervan, 2009), 7.

18) J. Duff, *The Elements of New Testa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2.

19) H. E. Dana and J. R. Mantey,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New York: Macmillan, 1927).

20) J. H. Moulton,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New Testament Greek* (London: Charles H. Kelly, 1914).

21) H. W. Smyth,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22) 클레어 슬로우트, 샤론 헨더슨 테일러, 제임스 호어드, 『음운학 개설』, 53-55.

23) H. E. Dana and J. R. Mantey,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21, 25-26; J. H. Moulton,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New Testament Greek*, 19-20; G. Machen,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 7; H. W. Smyth, *Greek Grammar*, 11;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61-65.

24) H. W. Smyth, *Greek Grammar*, 11.

25) []는 음성학 층위에서의 표현이고, //는 음운론 층위에서의 표현으로 언어학자들은 사용한다.

면 치조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²⁶⁾ 그런 점에서 σ 는 치조 마찰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3.2. 신약성경 그리스어 파열음 재구

파열음은 조금 더 복잡하다. 에라스무스식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입장을 견지한 몇몇 주요한 그리스어 문법학자들의 파열음 재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블랙은 β 는 유성 양순 정지음, π 는 무성 양순 정지음, ϕ 는 무성 순치 마찰 지속음으로 분류하고, θ 는 무성 간치 마찰 지속음, δ 는 유성 치조 정지음, τ 는 무성 치조 정지음, γ 는 유성 연구개 정지음, κ 는 무성 연구개 정지음, χ 는 무성 연구개 마찰 지속음으로 분류한다.²⁷⁾ 블랙은 전통적인 에라스무스 식에다가 음성학적인 분석을 첨가한 것뿐이다.

메이천은 음성학적인 분류를 하지 않았으나 그가 제시한 알파벳의 음가를 음성학적으로 풀어서 적으면 다음과 같다. 메이천의 분류는 β 는 유성 양순음, π 는 무성 양순음, ϕ 는 무성 순치 마찰음, θ 는 무성 간치 마찰음, δ 는 유성 치조음, τ 는 무성 치조음, γ 는 유성 연구개음, κ 는 무성 연구개음, χ 는 무성 연구개 마찰음으로 설명할 수 있다.²⁸⁾

다나와 만티는 1927년에 쓴 문법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²⁹⁾

<도표 1>

	smooth	middle	rough
gutturals 후음	κ	γ	χ
labials 순음	π	β	ϕ
dentals 치음	τ	δ	θ

조음 위치와 관련하여 다른 학자들과 같이 ϕ 를 순치음으로 보지 않고, 어중간하게 순음으로 본 다나와 만티의 제안은 독특하지만, 그에 대한 음성학적인 설명이 없는 것이 아쉽다. 또한 조음 방법과 관련하여 χ , ϕ , θ 를 rough로 본 것은 기식에 의한 구분(\pm aspirated)으로 보이지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제임스 호프 몰튼은 1914년에 나온 문법서(4판)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³⁰⁾

26) 3.2 참조.

27)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61-65.

28) G. Machen,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 7.

29) H. E. Dana and J. R. Mantey,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21, 25-26.

30) J. H. Moulton,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New Testament Greek*, 19-20. 몰튼의 입장은 나중에 다소 차이가 난다. 각주 20을 보라.

<도표 2>

	hard	soft	aspirate
gutturals	κ	γ	χ
labials	π	β	φ
dentals	τ	δ	θ

몰튼 역시 조음 위치와 관련하여 φ를 순치음으로 보지 않고, 애매하게 순음으로 보고 있으며, φ, θ, χ를 ‘유기음’으로 표기한 것은 음성학적으로는 보다 나아 보인다.

대표적인 고전 그리스어 문법학자인 허버트 위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³¹⁾

<도표 3>

classes			orders		
labial	π	β φ	smooth	π	τ κ
dental	τ	δ θ	middle	β	δ γ
palatal	κ	γ χ	rough	φ	θ χ

스미스의 분류는 순음(smooth)으로 π τ κ, 경음으로 β δ γ, 격음으로 φ θ χ를 분류하고, 순음(labial)으로 π β φ, 치음으로 τ δ θ, 구개음으로 κ γ χ를 분류했는데 이것은 다나와 만티의 입장과 같다.

이와 같이, 그 외 많은 문법학자들도 비슷한 설명들을 하고 있지만³²⁾ 언어학적인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가장 큰 이유들 중의 하나는 언어학의 한 분야인 음성학이 그 당시에 아직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간혹 상대적으로 후대에 출판된 저작들이라 하더라도, 그 책들에 언어학의 성과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은 역시 아쉬움이 있다.

언어학이 발전하면서 언어학의 학문적인 성과가 반영된 학자들의 제안들도 있다. 기식과 유무성의 분류에 따라 파열음 음가의 재구는 크게 두 가

31) H. W. Smyth,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11.

32) E. G. Jay, *New Testament Greek: An Introductory Grammar* (London: SPCK, 1965); W. W. Goodwin, *A School Greek Grammar* (London: Macmillan, 1899), 5; T. D. Hall, *A First Introduction to the Greek Testament* (London: John Murray, 1893), 23; S. G. Green, *Handbook to the Grammar of the Greek Testament* (London: Religious Tract Society, 1912), 5; J. Duff, *The Elements of New Testament*, 12-13; A. W. Argyle, *An Introductory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with Exercises* (London: Hodder & Stoughton, 1965), 1-2; G. Machen,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 9.

지 입장이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에라스무스식을 반영한 파열음의 두 가지 대립 체계로, 조음 위치와 관련해서는 β , π 는 양순 파열음이고 δ , τ 는 치조 파열음이며 γ , κ 는 구개 파열음으로 보는 것이다. 기식과 유무성의 분류로 볼 때는 β , δ , γ 는 유성 파열음인 반면에, π , τ , κ 는 무성 파열음으로 두 가지로 본다. ϕ , θ , χ 에 대한 조음 위치는 각자 다른 마찰음으로 보았다. 그 분류표는 아래 <도표 4>, <도표 5>와 같다.

<도표 4>

	유성음	유기 무성음
양순음	β	π
치조음	δ	τ
구개음	γ	κ

<도표 5>

ϕ	순치 마찰음
θ	간치 마찰음
χ	구개 마찰음

파열음의 두 가지 대립 체계는 전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³³⁾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대립 체계를 따르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그림의 법칙(Grimm's law)이나 베르너의 법칙(Werner's law)이 보여주듯이,³⁴⁾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음운 대응 관계와 인구어 전체의 음운 대응 관계를 고려해 본다면, ϕ 는 영어의 /f/에 대응하고, θ 도 영어의 /θ/에 대응하고, χ 는 독일어의 /ch/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둘째, 현대 그리스어에서 ϕ , θ , χ 의 조음 방법이 마찰음으로 발음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널리 알려져 있는 주요 인구어라 할 수 있는 영어, 독어, 불어 등의 음성 체계(phonetic system)에서 무기 유성 파열음(unaspirated voiced plosive)과 유기

33) 언어학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는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61-65를 보라. 블랙(D. A. Black)은 언어학적인 설명은 하고 있으나 그리스어에 대한 전통적인 이론들에 언어학적인 용어를 사용할 뿐, 비평적으로 토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

34) 그림의 법칙(Grimm's law)이나 베르너의 법칙(Werner's law)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들을 참조하라. C. D. Buck, *Comparative Grammar of Greek and Latin*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120; R. J. Jeffers and I. Lehiste,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6; N. E. Collinge, *The Laws of Indo-European* (Amsterdam: John Benjamins, 1985), 47-61; 김윤한, 『인구어 비교언어학』 (서울: 민음사, 1988), 334; A. L. Sihler, *New Comparative Grammar of Greek and Lati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142-144;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267-269.

무성 파열음(aspirated voiceless plosive) 사이에 변별력이 없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단지 변이음(allophone)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그들은 신약성경 그리스어의 파열음 체계를 두 가지 대립 체계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현대 인도-유럽어에서의 음운 대응 관계나 현대 그리스어에서 마찰음으로 발음된다는 것을 통시적으로 이천년 전의 음가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는 없다.³⁵⁾ 모든 언어에서 음성 변화는 항상 있기 때문이다. ϕ , θ , χ 의 조음 방법이 파열음에서 마찰음으로의 변화는 실제로 있었다.³⁶⁾ 이 세 자음들이 마찰음으로 조음 방법이 바뀌기 시작한 것의 기원은 라코니아 방언에서 그 초기 변화를 감지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θ 의 음운 표시(phonological representation)가 σ 로 변화한 것이 기원후 4세기가 되어서야 일반화되고 있고 1세기에는 그러한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³⁷⁾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천년 전의 언어와 현대어를 비교하는 것보다, 공시적인 방법으로 그 당시 문헌들에 나타나는 문법 규칙들과 관련된 음운 규칙들을 연구하는 내적 재구 방법을 통하여 재구할 때 그 그리스어 자음들의 음가들을 보다 설득력 있게 재구해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한국어의 파열음은 세 가지 대립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어 화자들은 성경 그리스어 파열음의 음가들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여 발음할 수 있다. 인구어 화자들의 경우, 인구어의 음성 체계에 나오지 않는 발음이기에 발음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두 가지 대립 체계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신약성

35) 심지어, 몇몇 학자들은 에라스무스식 발음보다 현대 그리스어 발음이 코이네 그리스어에 보다 가까운 재구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에라스무스식 발음이 현대 그리스어식 발음보다 더 낫다는 주장은 M. Dillon, "The Erasmus Pronunciation of Ancient Greek: A New Perspective", 323-334를 보라. 무엇보다도, Lund 대학의 그리스 출신 학자인 카라구니스(C. C. Caragounis)는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에서 고전 그리스어에서부터 현대 그리스어까지 그리고 그리스어 방언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하고도 방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현대 그리스어 발음과의 연속성에서 성경 그리스어의 발음을 재구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는 100년만 지나도 엄청나게 바뀐다. 한국어만 하더라도 백 년 전에 있었던 순경음 '비읍'이나 '아래 야'와 같은 알파벳이 지금은 없다. 그런 점에서 현대 그리스어와 이천년 전의 코이네 그리스어가 발음에 있어서 유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세 실바(Moisés Silva)는 카라구니스의 저서가 일반 언어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모세 실바 교수의 비평은 "Biblical Greek and Modern Greek: A Review Article", *WTJ* 67 (2005), 391-404를 보라. 또한 카라구니스 교수가 재구한 현대 그리스어와 유사한 발음에 대한 비판은 Sang-II Lee,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 Bilingual Context: A Study in the Interdirectionality of Language*, BZNV 186 (Berlin: de Gruyter, 2012), 244를 보라.

36) S. Allen, *Vox Graeca: A Guide to the Pronunciation of Classical Greek*, 18; C. D. Buck, *Comparative Grammar of Greek and Latin*, 119.

37) A. L. Sihler, *New Comparative Grammar of Greek and Latin*, 142.

경 그리스어 파열음의 음가들을 두 가지 대립 체계로 보는 것이 언어학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어 화자로부터 신약성경 그리스어를 배운 한국 교수들은 언어학적인 근거도 없고, 한국어 음성 체계에도 없는 /f/나 /θ/나 /ch/를 그리스어 파열음으로 가르쳐 왔다. 그러나 언어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³⁸⁾

그리스어 음가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몇몇 학자들은 성경 그리스어 파열음을 세 가지 대립 체계로 제시하기도 한다. 즉, β, π, φ는 양순 파열음이고, δ, τ, θ는 치조 파열음이며, γ, κ, χ는 구개 파열음으로 조음 위치에 따라서 구분한다. 기식과 유무성으로 분류할 때는 β, δ, γ는 유성 파열음이고, π, τ, κ는 무기 유성 파열음이고, φ, θ, χ는 유기 무성 파열음으로 세 가지로 분류한다. 윌리엄 굿윈(William Goodwin),³⁹⁾ 허버트 스미스,⁴⁰⁾ 제임스 몰튼과 윌버트 하워드(Wilbert F. Howard),⁴¹⁾ 그리고 시드니 알렌(Sidney Allen)⁴²⁾은 그리스어 파열음을 세 가지 대립 체계로 보았다. 이것을 도표로 만들면 <도표 6>과 같다.

<도표 6>

	유성음	무기 유성음	유기 무성음
양순음	β	π	φ
치조음	δ	τ	θ
구개음	γ	κ	χ

<도표 6>이 제시하는 음운 재구가 보다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학자들은 이 음운 재구들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언어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리스어 문법에서 발견되는 음운 규칙들(phonological rules)을 고려할 때, <도표 6>에서 제안하는 음운 재구가 전통적인 음운 재구인 <도표 1>과 <도표 2>보다는 보다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38) 홍미륵게도, 외국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선교사 구두인은 “希臘語와 韓國語發音의 比較”, 『神學論壇』 7 (1962), 114-124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희랍 사람이 3백년까지 φ를 ‘포’처럼 하고 θ를 ‘트’처럼 하고 χ를 ‘키’처럼 발음했다고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랍어를 공부하는 한국학생은 이 글자를 f와 영어의 th와 독일어 ch와 같이 발음하면은, 그 어려운 일을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잘못하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포’와 ‘트’와 ‘키’와 같은 발음은 한국학생에게 더 쉬울 뿐 아니라, 또한 φ와 θ와 χ의 정확한 발음입니다.”

39) W. W. Goodwin, *A School Greek Grammar*, vii, ch. 28.

40) H. W. Smyth, *Greek Grammar*, ch. 23.

41) James H. Moulton and Wilbert F. Howard, *A Grammar of New Testament, II: Accidence and Word Formation* (Edinburgh: T&T Clark, 1919-1929), ch. 25.

42) S. Allen, *Vox Graeca: A Guide to the Pronunciation of Classical Greek*, 14-32.

있다. 그에 대한 증거로 여섯 가지 언어학적 근거가 있다.⁴³⁾

첫째, 신약성경 그리스어에서 미래 시제를 만들 때 σ 와 결합하면서 β , π , ϕ 는 ψ 가 되고, γ , κ , χ 는 ξ 가 되며, δ , τ , θ 는 묵음(mute)이 된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학자들이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무조건 외우라고 하였지만, 음성학/음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 즉, σ 는 치조 마찰음(alveolar fricative)이다. 그래서 σ 가 다른 치조음들인 δ , τ , θ 와 충돌하기 때문에 δ , τ , θ 가 묵음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것은 ϕ 가 β , π 와 같이 그것들의 조음 위치가 양순음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음운론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χ 가 γ , κ 와 같이 그것들의 조음 위치가 구개음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음운론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θ 가 δ , τ 와 같이 그것들의 조음 위치가 치조음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음운론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시제를 만드는 음운 규칙을 볼 때, ϕ 가 양순 파열음, χ 는 구개 파열음, θ 는 치조 파열음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

둘째, 파열음의 음가에 대한 논의는 제1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과 관련이 있다. 제1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어미는 $-\theta\eta\nu$ 인데, $-\theta\eta\nu$ 속에 부정과거 시제를 표지하는 σ 가 포함되어 있다는 가정 때문에 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 어미는 각 모음에서 σ 가 빠진 것으로 되 돌아온다. 그래서 π 는 $-\phi\theta\eta\nu$ 이 되는데 이것은 ϕ 가 양순음(bilabial)이라야 가능할 수 있는 언어학적 현상으로 보인다. γ 의 경우, $-\chi\theta\eta\nu$ 가 되는데 이러한 음운론적 변화는 χ 가 구개음(palatal)이라야 가능한 음운론적 현상이다. 또한 τ 의 경우, $-\sigma\theta\eta\nu$ 으로 변화하는데 이러한 음운론적 변화는 τ 와 σ 가 둘 다 치조음(alveolar)이라야 가능한 음운론적 현상이다. 마지막으로, ζ 의 경우, $-\theta\eta\nu$ 이 되는데 ζ 가 치조음(alveolar)이라야 가능한 음운론적 현상이다. 따라서 제1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을 형성하는 음운 규칙은 ϕ 가 양순 파열음, χ 는 구개 파열음, θ 는 치조 파열음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셋째, 파열음의 음가와 관련해서 현재완료 능동태 직설법 시제를 만들 때도 유사한 음운규칙들이 발견된다. 현재완료 능동태 시제 접두어를 만드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ϕ 앞에는 π 를, χ 앞에는 κ 를, 그리고 θ 앞에는 τ 를 붙여준다. 이런 통사 규칙들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ϕ 가 π 와 같은 조음 위치인 양순음일 가능성과, χ 가 κ 와 같은 조음 위치인 구개음일 가능성과, θ 가

43) 코이네 그리스어의 파열음과 관련해서는 이상일, “신약성경 헬라이어 파열음의 한글 음역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충신대논총』 33 (2013), 532-553에서 한글 음역을 중심으로 파열음에 대해서 다루었고 그 증거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첨가하면서 전반적으로 개정하고 여섯 가지의 증거를 들었다.

τ와 같은 조음 위치인 치조음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현재완료 능동태 직설법의 음운 규칙을 통해서 볼 때, φ가 양순 파열음, χ는 구개 파열음, θ는 치조 파열음일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역사비교언어학적으로 볼 때, 인구어의 음성 변화 중에서 그래스만의 법칙(Grassmann's Law)으로 널리 알려진 자음의 이화(dissimilation)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⁴⁴⁾ 그래스만의 법칙을 설명할 때, 그리스어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음운 규칙으로 가장 잘 알려진 예로는 τίθημι가 있다. τίθημι는 *θιθημι에서 변화한 것이다. 이것도 역시 θ가 τ와 같은 조음 위치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음운론적 현상이다. 따라서 θ는 치조 마찰음이라기보다는 치조 파열음일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파열음을 마지막 음절에 가지고 있는 ἀπό, ἐπί, κατά, μετά와 같은 전치사가 π나 τ로 끝날 경우, 강기식으로 시작하면 π는 φ가 되고, τ는 θ가 된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 4:11은 καθ' ὑστέρησιν으로 되어 있다. 강기식 앞에서 τ는 θ가 되었다. 이것은 π는 φ와 같은 조음 위치일 가능성을 보여주고, τ는 θ와 같은 조음 위치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여섯째, 합성동사의 경우, 그 단어의 형성에서도 동일한 부분 동화(partial assimilation)의 음운론적 현상이 나타난다. ἐμφανίζεῖν의 경우, φ 때문에 μ로 되었다.⁴⁵⁾ 고린도후서 12:1의 συμφέρον의 경우도 φ 때문에 μ가 되었다. 이것은 μ가 양순음이기 때문에 φ도 양순음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음운론적 현상이다. 따라서 φ는 순치음이라기보다는 양순음으로 봐야 한다. 이런 부분 동화 현상을 통해서 볼 때, φ는 양순음으로 재구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그리스어 파열음을 세 가지 대립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음을 여섯 가지 예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세 가지 대립 체계로 이해할 경우, 그 동안 예외로 다루면서 외우라고 했던 음운론적 현상들이 음운론적인 일반 규칙들이 된다.⁴⁶⁾ 앞에서 말했듯이, 널리 알려진 주요한

44) 그래스만의 법칙(Grassmann's Law)에 대해서는 다음 출판물을 참조하라. C. D. Buck, *Comparative Grammar of Greek and Latin*, 120; R. J. Jeffers and I. Lehiste,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6; N. E. Collinge, *The Laws of Indo-European*, 47-61; 김운한, 『인구어 비교언어학』, 334; A. L. Sihler, *New Comparative Grammar of Greek and Latin*, 142-144;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267-269.

45) 그리고 벵전 4:12에서 συμβαινόντος도 부분 동화의 예로 볼 수 있다. σσ가 ττ로 되는 것도 부분 동화 음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46) 문법학자와 언어학자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는 불규칙한 문법의 유형들을 규칙적인 유형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인구어의 음운 체계에서 무기 유성 파열음이 유기 무성 파열음과 변별력을 지니지 않는다. 이것은 그 언어의 화자들이 무기 무성 파열음을 발음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무기 유성 파열음이 유기 무성 파열음의 변이음으로 인식되어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영어 화자들이 [PAPER]를 발음할 때 이러한 현상이 관찰된다. 첫 번째 [p]는 유기 무성 파열음으로만 발음한다. 그래서 /p^h/로, 한글로는 /ㅍ/로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p]는 주로 유기 무성 파열음으로 발음하지만 (한글로 음역하면 /ㅍ/), 무기 유성 파열음으로(한글로 음역하면 /ㅃ/) 발음하기도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p]와 같은 양순 파열음의 경우 유기 무성 파열음을 무기 유성 파열음의 변이음(allophone)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변이음은 음성학적으로는 같고, 음운론적으로는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하나의 음성으로 분류되지 않는다.⁴⁷⁾ 추측하건대, 인구어 화자들 중에 많은 학자들이 그리스어 파열음을 세 가지 대립 체계로 보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경음과 격음 사이의 발음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β, δ, γ는 유성 파열음이고, π, τ, κ는 무기 유성 파열음이고, φ, θ, χ는 유기 무성 파열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음운론적으로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4. 코이네 그리스어의 파찰음 재구

그리스어 이중자음들(double consonants), ψ, ζ, ξ의 음가에 대해서도 여러 학자들의 설명들이 있다. 메이첸은 ψ, ζ, ξ의 음가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 없이 각각 ps, dz, x로 제시한다.⁴⁸⁾ 다나와 만티의 경우 σ, ζ, ξ, ψ를 치찰음으로 보았다.⁴⁹⁾ σ는 치찰음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ζ, ξ, ψ마저도 치찰음으로 본 이유는 σ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한다.⁵⁰⁾ 그러나 ζ는 σ의 음가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치찰음으로 볼 수 없다. 스미스는 ψ는 무성 양순 이중자음, ζ는 유성 치음 이중자음, ξ는 무성 구개 이중자음으로 설득력 있게 분류한다.⁵¹⁾ 블랙의 경우, 독특하게 그리스어 파찰음들을 ‘지속음(continuant)’

47) 클레어 슬로우트, 샤론 헨더슨 테일러, 제임스 호어드, 『음운학 개설』, 70을 참조하라.

48) G. Machen,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 7.

49) H. E. Dana and J. R. Mantey,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26.

50) *Ibid.*, 21, 25-26.

51) H. W. Smyth, *Greek Grammar*, 12.

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⁵²⁾ 그러나 일반적으로 언어학자들은 파찰음들을 지속음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⁵³⁾ 왜냐하면 파찰음의 첫 부분을 조음하는 동안에는 파열음처럼 기류가 입에서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카라구니스(C. C. Caragounis)는 ζ의 음가와 관련하여 ζ와 σ의 관계를 유무성의 대립으로 설명하면서 ζ를 마찰음으로 분류하기도 한다.⁵⁴⁾ 그러나 다음에 나타나는 문법의 음운 규칙들을 고려할 때 블랙이 제시하듯이 파찰음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⁵⁵⁾

파찰음은 파열을 한 후에 마찰시키는 음을 말한다.⁵⁶⁾ 아래에 제시하는 음운규칙들을 볼 때, 그리스어 이중자음들인 ψ, ζ, ξ는 파찰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⁵⁷⁾ 그리스어 이중자음들인 파찰음들에 대해서는, ψ는 양순 무성 파찰음 /ps/로, ζ는 치조 유성 파찰음 /dz/로, ξ는 구개 무성 파찰음 /ks/로 각각 재구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첫째, 파열음의 분류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래 시제를 만들 때 σ와 결합하면서 β, π, φ는 ψ가 되고, γ, κ, χ는 ξ가 되며, δ, τ, θ와 ζ는 σ가 치조 마찰음이기 때문에 치조음들 간의 충돌에 의해서 묵음이 된다.

πέμπω --> πέμψω
 ἄγω --> ἄξω
 σῶζω --> σῶσω⁵⁸⁾

이와 같이, 미래 시제를 만들 때 음운 현상을 보면, 치조 마찰음인 σ와 결합하는 음운 규칙들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어 파찰음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보다 설득력 있게 재구할 수 있다. 양순 파찰음인 ψ는 β, π, φ와 같은 조음 위치인 양순음으로 보아야 하고 파찰되는 조음 위치의 경우 양순 파열음(φ)에서 치조 마찰음(σ)으로 옮겨 가는 이중자음으로 볼 수 있다. 치조 파찰음인 ζ는 δ, τ, θ와 같은 조음 위치인 치조음으로 보아야 하고, 파찰되는

52)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64-65. 블랙은 일반언어학 이론을 광범위하게 그리스어에 적용시켰지만 여러 부분에서 언어학 전문 지식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다.

53) V. Fromkin & R. Rodman, *An Introduction to Language* (Fort Worth: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8), 41; P. Carr, *Phonology*, 7.

54) C. C. Caragounis,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352.

55)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64-65.

56) 클레어 슬로우트, 샤론 헨더슨 테일러, 제임스 호어드, 『음운학 개설』, 56-57을 참조하라.

57)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64-65.

58) ζ도 역시 조음 위치가 치조음이므로 동일한 음운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조음 방법이 파찰음이다.

조음 위치의 경우, σ 가 동일한 조음 위치인 치조음이기에 ζ 가 δ , τ , θ 와 같이 묵음된다. ξ 는 γ , κ , χ 와 같은 조음 위치인 구개음으로 보아야 하고 파찰되는 조음 위치의 경우 구개 파열음(χ)에서 치조 마찰음(σ)으로 옮겨가는 이중자음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미래시제의 음운 규칙을 통해서 볼 때, 이 세 파찰음들에 대해서, ψ 는 양순 무성 파찰음으로, ζ 는 치조 유성 파찰음으로, ξ 는 구개 무성 파찰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음을 제시한다.

둘째, 제1부정과거 수동태 직설법의 음운 규칙에서도 동일한 예를 볼 수 있다. 그 시제와 태의 어미는 $-\theta\eta\nu$ 인데 $-\theta\eta\nu$ 속에 부정과거를 지시하는 과거 시제 표시인 σ 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각 단어의 어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σ 가 빠진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phi\theta\eta\nu$ 에서 ψ 가 양순 파찰음이라야 σ 가 빠지고 양순 파열음인 ϕ 가 된다. $-\chi\theta\eta\nu$ 에서 ξ 가 구개 파찰음이라야 σ 가 빠지고 구개 파열음인 χ 가 된다. 마지막으로, ζ 는 묵음이 되어 $-\theta\eta\nu$ 이 되는데 ζ 가 치조음이라야 동일한 조음 위치인 θ 와 충돌하면서 치조 파찰음 ζ 가 묵음이 된다. 이 현상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pi\acute{\epsilon}\mu\pi\omega \rightarrow \acute{\epsilon}\pi\acute{\epsilon}\mu\phi\theta\eta\nu$

$\acute{\alpha}\gamma\omega \rightarrow \acute{\eta}\chi\theta\eta\nu$

$\sigma\acute{\omega}\zeta\omega \rightarrow \acute{\epsilon}\sigma\acute{\omega}\theta\eta\nu$

따라서 ψ 는 양순 무성 파찰음 /ps/로 발음되고, ζ 는 치조 유성 파찰음 /dz/⁵⁹⁾로 발음되며, ξ 는 구개 무성 파찰음 /ks/로 재구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다.

5. 신약성경 그리스어 비음, 설측음, 굴림음 재구

신약성경 그리스어 자음의 분류에서 유음으로 불리는 자음군이 있다. 그것들은 μ , ν , λ , ρ 이다. 이 네 자음의 재구된 음가 자체가 크게 논란이 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유음동사가 미래 시제와 결합할 때 미래 시제 어미인 σ 가 생략되는 문법 현상으로 인해 학자들은 이 네 자음을 유음동사 군으로 분류하면서 다양한 설명들을 해왔다.

블랙은 ν 를 유성 치조 비음 지속음으로, μ 를 유성 양순 비음 지속음으로,

59) ζ 가 이중자음인 것은 확실해 보이나, [dz], [dʒ], [ʒ] 중에서 [dz]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주제를 이 논문에서 자세히 다루기에는 논문의 분량이 허락하지 않는다.

λ 를 유성 설측 지속음으로, ρ 를 유성 권설 전이음(반모음)으로 각각 분류한다.⁶⁰⁾ 메이천은 μ, ν, λ, ρ 를 각각 m, n, l, r로 제시하면서 그 네 자음을 유음동사로 분류한다.⁶¹⁾ 다나와 만티는 μ, ν, λ, ρ 를 유음으로 설명한다.⁶²⁾ 스미스는 μ 를 유성 양순 비음으로, ν 는 유성 치음 비음으로, λ 는 유성 구개 유음으로, 그리고 ρ 와 $\dot{\rho}$ 는 치음과 구개음 사이에 있는 유음이며 전자는 유성음이고 후자는 무성음으로 분류한다.⁶³⁾

그러나 음성학적으로 볼 때 μ, ν, λ, ρ 를 유음동사군으로 설명하는 것은 지속음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음성학적으로 음가를 재구한다는 점에서 보면, 유음동사라는 표현보다는 μ 와 ν 는 비음으로, λ 는 설측음으로, ρ 는 굴림소리로 조음 방법적으로 분류하는 것이 문법 설명에서 일관성이 있다. 유음동사군에서 σ 가 생략되는 이유는 둘 다 지속음이기 때문이다. 즉, 음운론적으로 볼 때 호음조(euphony)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블랙은 ρ 를 권설음(retroflex)으로 설명⁶⁴⁾하는데 언어학적으로 두 가지 점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다. 권설음은 조음 방법이지 조음 위치가 아니며, 권설음은 조음 위치적으로 볼 때 치조에서 나타난다.⁶⁵⁾ 조음 방법적으로 볼 때, 권설음이라는 말은 혀끝이 말리는 것⁶⁶⁾을 말하는데 성경 그리스어에서 ρ 은 후음이기 때문에 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음운론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설명이다. 그런 점에서 ρ 은 후음 지속 굴림음이 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조음 방법과 조음 위치를 고려할 때, μ 는 양순 비음, ν 는 치조 비음, λ 는 경구개 설측음, ρ 는 후두 지속 굴림음으로 각각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구개 설측음과 후두 지속 굴림음은 유음으로 분류되고⁶⁷⁾ μ, ν 는 비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60)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61-65. 블랙은 주요 자음들의 분류를 ‘정지음’, ‘지속음’, 그리고 ‘파찰음’으로 분류하지만, 언어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그리스어 비음에는 μ 와 ν 가 있다. 블랙은 『신약성경 헬라어』 64-65쪽에서 그리스어 비음 μ 와 ν 를 ‘지속음(continuant)’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비음은 정지음(stop)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왜냐하면 기류가 입에서 막혀 있는 동안에 코로 단지 ‘탈출’할 뿐이기 때문이다. 블랙은 일반언어학 이론을 광범위하게 그리스어에 적용시켰지만 여러 부분에서 언어학 전문 지식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도 하다. 언어학자들의 분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출판물을 참조하라. V. Fromkin and R. Rodman, *An Introduction to Language*, 41; P. Carr, *Phonology*, 7.

61) G. Machen,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 7. 유음동사에 대해서는 이 책의 26장을 참조하라.

62) H. E. Dana and J. R. Mantey,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25.

63) H. W. Smyth, *Greek Grammar*, 12.

64) D. A. Black,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65.

65) V. Fromkin and R. Rodman, *An Introduction to Language*, 45.

66) *Ibid.*, 45.

67) 클레어 슬로우트, 샤론 헨더슨 테일러, 제임스 호어드, 『음운학 개설』, 63.

6. 결론

코이네 그리스어 자음의 음가 재구와 관련하여 오랫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다. 그들의 설명에는 언어학적인 방법론이 없다든지, 언어학적인 일관성이 부족한 제안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사용하는 내적 재구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음운 규칙을 관찰해 볼 때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 그 결과 내적 재구에 의한 신약성경 그리스어 자음들의 음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σ 치조 마찰음
- β 양순 유성 파열음
- δ 치조 유성 파열음
- γ 구개 유성 파열음
- π 양순 무기 유성 파열음
- τ 치조 무기 유성 파열음
- κ 구개 무기 유성 파열음
- φ 양순 유기 무성 파열음
- θ 치조 유기 무성 파열음
- χ 구개 유기 무성 파열음
- ψ 양순 무성 파찰음
- ζ 치조 유성 파찰음
- ξ 구개 무성 파찰음
- μ 양순 비음
- ν 치조 비음
- λ 경구개 설측음
- ρ 후두 지속 굴림음

<주제어>(Keywords)

그리스어 자음, 음가, 음성 재구, 내적 재구, 음운 규칙.

Greek consonant, sound value, sound reconstruction, internal reconstruction, phonological rule.

(투고 일자: 2018년 1월 31일, 심사 일자: 2018년 3월 12일, 게재 확정 일자: 2018년 4월 21일)

<참고문헌>(References)

- 구두인, “希臘語와 韓國語發音의 比較”, 『神學論壇』 7 (1962), 114-124.
- 김방한 외, 『일반언어학』, 서울: 형설, 1992.
- 김윤환, 『인구어 비교언어학』, 서울: 민음사, 1988.
- 박창환, 『신약성서 희랍어 교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2.
- 슬로우트, 클레어, 테일러, 샤론 헨더슨, 호어드, 제임스, 『음운학 개설』, 이현복, 김기섭 공역, 서울: 탐구당, 1983; C. Sloat, S. H. Taylor, and J. E. Hoard, *Introduction to Phonology*, New Jersey: Prentice Hall, 1978.
- 이상일, “신약성경 헬라어 파열음의 한글 음역에 대한 언어학적 연구”, 『총신대논총』 33 (2013), 532-553.
- 이순환, 『신약성서 헬라어』, 서울: 생명의말씀사, 2002.
- 장석조, 『신약성경 헬라어』, 서울: 그리심, 2010.
- 조운일, 『신약 헬라어』, 서울: 솔로몬, 2009.
- 웰스, 존, 코울슨, 그레타, 『음성학』, 이현복 편역, 서울: 탐구당, 1982; J. C. Wells, and G. Colson, *Practical Phonetics*, London: Pitman, 1971.
- Allen, S., *Accent and Rhythm: Prosodic Features of Latin and Greek: A Study in Theory and Reconstru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 Allen, S., *Vox Graeca: A Guide to the Pronunciation of Classical Greek*, 3r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Argyle, A. W., *An Introductory Grammar of New Testament Greek with Exercises*, London: Hodder & Stoughton, 1965.
- Black, D. A., 『신약성경 헬라어와 일반언어학』, 이상일 역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Linguistics for Students of New Testament Greek: A Survey of Basic Concepts and Applications* (Grand Rapids: Baker 1998).
- Buck, C. D., *Comparative Grammar of Greek and Latin*,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3.
- Bywater, I., *The Erasmian Pronunciation of Greek and its Precursors Jerome Alexander Aldus Manutius Antonio of Lebrixa*, London: Henry Frowde, 1908.
- Caragounis, C. C., *The Development of Greek and the New Testament: Morphology, Syntax, Phonology, and Textual Transmission*, WUNT I 167,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Carr, P., *Phonology*, London: Macmillan, 1993.
- Collinge, N. E., *The Laws of Indo-European*, Amsterdam: John Benjamins, 1985.
- Colvin, S., *A Historical Greek Reader: Mycenaean to the Koiné*, Oxford: Oxford

- University Press, 2007.
- Dana, H. E. and Mantey, Julius R., *A Manual Grammar of the Greek New Testament*, New York: Macmillan, 1927.
- Dillon, M., “The Erasmus Pronunciation of Ancient Greek: A New Perspective”, *The Classical World* 94:4 (2001), 323-334.
- Duff, J., *The Elements of New Testament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 Fromkin, V. and Rodman, R., *An Introduction to Language*, Fort Worth: Holt, Rinehart and Winston, 1988.
- Goodwin, W. W., *A School Greek Grammar*, London: Macmillan, 1899.
- Green, S. G., *Handbook to the Grammar of the Greek Testament*, London: Religious Tract Society, 1912.
- Hall, T. D., *A First Introduction to the Greek Testament*, London: John Murray, 1893.
- Hyman, L. M.,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1975.
- Jay, E. G., *New Testament Greek: An Introductory Grammar*, London: SPCK, 1965.
- Jeffers, R. J. and Lehiste, I.,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London: The MIT Press, 1979.
- Lee, Sang-Il, *Jesus and Gospel Traditions in Bilingual Context: A Study in the Interdirectionality of Language*, BZNV 186, Berlin: de Gruyter, 2012.
- Machen, G., *New Testament Greek for Beginners*, New York: Macmillan, 1923.
- Moore, N. F., *Remarks on the Pronunciation of the Greek Language*, New York: James Eastburn and Co., 1819.
- Moulton, J. H.,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New Testament Greek*, London: Charles H. Kelly, 1914.
- Moulton J. H. and Howard, W. F., *A Grammar of New Testament, II: Accidence and Word Formation*, Edinburgh: T&T Clark, 1919-1929.
- Mounce, W. D., *Basics of Biblical Greek Grammar*, Grand Rapids: Zondervan, 2009.
- Probert, P., “Phonology”, E. J. Bakker, ed., *A Companion to the Ancient Greek Language*, West Sussex: Wiley Blackwell, 2010, 85-103.
- Sihler, A. L., *New Comparative Grammar of Greek and Latin*,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Silvas, M., “Biblical Greek and Modern Greek: A Review Article”, *WTJ* 67 (2005), 391-404.

- Smyth, H. W.,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20.
- Stanford, W. B., *The Sound of Greek: Studies in the Greek Theory and Practice of Euphony*, Berkeley &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Wallace, D. B., *The Basics of New Testament Syntax: An Intermediate Greek Grammar*, Grand Rapids: Zondervan, 2000.

<Abstract>

Reconstruction of Sound Values of New Testament Greek Consonants by the Method of Internal Reconstruction

Sang-Il Lee
(Chongshin University)

There are three reasons to reconstruct the original sound values of Hellenistic Greek consonants according to linguistic levels. At the phonological level, we can trace the phonological rules based on the phonological process if we know the exact sound values of Hellenistic Greek. At the level of morphology, we can teach the derivational affix and inflectional affix in an easier way. At the level of syntax, we can understand syntactic rules according to phonological process and phonological rules. We can explain some irregular morphological and syntactic rules into regular morphological and syntactic rules on the basis of reconstructed original sound values. From the perspective of syntax, a good grammar is to reduce irregular grammatical rules.

The grammarians of Hellenistic Greek have suggested their reconstructed sound values of Hellenistic Greek consonants. But they have not applied General Linguistics to reconstructing the sound values because General Linguistics as an academic subject did not begin at that time. It is also probable that some recent scholars, in a sense, did not accept nor understand the outcomes of General Linguistics fully. In relation to reconstruction of sound values, linguists have generally used internal reconstruction to reconstruct the original sound values of a language. It is persuasive to use the method of internal reconstruction to reconstruct the sound values of Hellenistic Greek consonants. According to the linguistic analysis of internal reconstruction, the original sound values of Hellenistic consonants can be explained as follows:

- σ alveolar fricative
- β bilabial voiced plosive
- δ alveolar voiced plosive
- γ palatal voiced plosive
- π bilabial unaspirated voiced plosive

- τ alveolar unaspirated voiced plosive
- κ palatal unaspirated voiced plosive
- φ bilabial aspirated voiceless plosive
- θ alveolar aspirated voiceless plosive
- χ palatal aspirated voiceless plosive
- ψ bilabial voiceless affricate
- ζ alveolar voiced affricate
- ξ palatal voiceless affricate
- μ bilabial nasal
- ν alveolar nasal
- λ palatal lateral
- ρ guttural rolled